

보도시점 : 2023. 6. 20.(화) 11:00 이후(6. 21.(수) 조간) / 배포 : 2023. 6. 20.(화)

한-이라크 공동위, 6년 만에 재개... 협력 강화로 대형 프로젝트 해외 수주 청신호

- 지난 원팀코리아 수주활동 통해 논의... 양국 고위급 협력 플랫폼 6년 만에 재개
- 이라크 재건사업,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관련 해외 수주 청신호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6월 21일(수) 서울에서 『제9차 한-이라크 공동위원회(이하 공동위)』를 개최한다.

* (일시/장소) '23.6.21.(수) 10:00~16:30 / 그랜드 하얏트 호텔

- 이번 공동위는 한국과 이라크의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자리로서, 한국 대표단은 14개 부처 5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대표단장으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.
- 한-이라크 공동위는 ‘17년 이후 이라크 정세불안 등으로 중단되었으나, 원팀코리아 수주 활동(단장 원희룡, '23.1)을 통해 원희룡 장관이 양국의 정례화된 협력 플랫폼 재개를 제안하였고, 이를 통해 6년 만에 재개되었다.
- 이번 공동위 회의를 통해 중단되었던 고위급 협력 채널이 다시 가동되며, 교통, 항공,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될 예정이다.
- 또한, 이라크 재건사업, 비스마야 신도시 재건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논의도 예상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에도 긍정적인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.

< 주요 논의 사항 >

- (인프라) 교통·인프라 양해각서 체결, 이라크 알포항 사업 협력,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 협의, 바그다드-서울 정책협력 양해각서 체결, 항공운송 서비스 협정 개정 등 추진
- (무역·투자·금융) 투자보장협정, 이중과세 방지협정, 세관협력 협정 등 체결 합의
- (산업·에너지·자원) 에너지·석유화학산업 분야 협력 강화, 석유·가스 분야 투자 확대
- (외교·문화·교육 등) 외교, 법무, 교육,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양해각서 체결 합의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89년 수교 이후 공식 협력 채널로 양국의 친선관계에 초석을 마련해 왔던 한-이라크 공동위가 재개됨에 따라, 이라크 내 교통·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수주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	책임자	과 장	우종하 (044-201-3526)
		담당자	사무관	채한규 (044-201-3527)



□ **개최 배경**

- '83년 한-이 무역·경제·기술·과학 협력협정에서 개최합의 후 '17년까지 8차례 개최, 인프라·에너지·문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방안 논의
- 이라크 정세불안 등으로 6년간 중단되었으나, '23.1월 원팀코리아 (단장: 국토부 장관) 파견 계기로 양국간 재개 합의
 - 기재부, 해수부, 법무부, 산업부, 외교부, 문체부, 교육부, 농진청, 환경부 등 관계부처도 참여하여 협력의제 논의

□ **회의 개요**

- (일 시) '23.6.21(수) 실무회의 10:00-12:10 / 본회의 15:00-16:30
- (행사장) 그랜드 하얏트(서울 용산구 소월로 322)
- (수석대표) ^{한국}국토부 장관 - ^{이라크}무역부 장관
 - ※ (차석대표) ^{한국}건설정책국장 - ^{이라크}주택건설부 차관
- (논의의제) ①인프라(건설, 교통, 항공, 항만), ②무역·투자·금융, ③산업·에너지·자원, ④외교·법무·보안·행정, ⑤교육·문화·체육
- (주요일정)

시 간		주요 내용
6.20(화)	오후	이라크 대표단 입국
6.21(수)	오전	실무회의
	오후	수석대표 접견, 본회의, 합의의사록 서명, 만찬
6.22(목)	오전	기업현장 방문
	오후	문화시찰
6.23(금)		이라크 대표단 출국